

JPI WORKING PAPER

유럽 평화연구의 현황과 전망:
JPI 국제화를 위한 제언

전 광 호



JPI Press

JPI Working Paper



발행일: 2007년 12월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인: 권영민
편집장: 고성운
보조편집인: 김순선, 김민정

JPI Working Paper
JPI Press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5-6512
이메일: jpiworkingpapers@gmail.com

제주평화연구원(Jeju Peace Institute)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자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평화운동의 요람이 되고자 2006년 3월에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임무는 평화·안보·동북아경제통합 과제연구, 국제학술 협력 및 평화 확산 운동, 평화네트워크 구축, 자문활동 및 평화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가 육성입니다. 발행물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JPI 홈페이지 www.jpi.or.kr에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jpiworkingpapers@gmail.com으로 연락바랍니다.

JPI Working Paper는 국·영문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이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입니다. 본 Paper는 특정 이슈에 대한 JPI 연구원들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독자들과 특정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다자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토론의 장을 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 Paper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전문가 및 일반인들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정책 실무진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질문, 의견, 제안은 JPI Press로 문의바랍니다.

본지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당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저자소개



kwangho.chun@kcl.ac.uk
+44 (0) 1793 788060

필자 **전광호(全光鎬)**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 한 후, 벨기에 루뱅대학(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에서 유럽학 석사와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음.

벨기에 루뱅대학(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정치학과 조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전쟁학부(War Studies Group, King's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 교수로 재직 중임 또한 제주평화연구원의 유럽 Liaison Scholar와 세계평화학회(IPRA)의 Research Commission on 'Sports and Peace'의 Co-Convener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The European Union, East Asia and South Korea* (Louvain-la-Nueve Presses Universitaires de Louvain, 2005); 'European Union's Counter-Terrorism Policy Sett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Oughtopia*, No. 21, Vol. 1, 2006. 'Établir une Zone Exempte d'Arme Nudéaire en Asie du Nord-Est?: Les leçons tirées de la comparaison des traités internationaux,' *Revue Internationale de Pditique Comparée*, No. 13, Vd. 3, 2006.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Cashiers Internationale Betrekkingen en Vredesonderzoeks*, Jg. 25, Vbl. 75, 2007; 'European Parliament and its Posi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Debate,' *Korean Journal of European Studies*, No. 25, Vd. 1, 2007 등이 있으며, 민주평화론, 전쟁과 평화, 유럽정치를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음.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전쟁학부(War Studies Group, King's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는 War Studies Department, Defence Studies Department, Air Power Studies Divis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사학, 평화학, 국제 관계학, 정책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학부임. 연간 400만 파운드(한화 약 80억원) 이상의 연구비 수주 실적과 100명 이상의 교수 및 1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군사학, 평화학, 역사학, 국제관계학, 국제법,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내고 있음.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전화: (064)735-6500 / 팩스: (064)735-6512
이메일: jpiworkingpapers@gmail.com
홈페이지: <http://www.jpi.or.kr>

JPI WORKING PAPER

유럽 평화연구의 현황과 전망:
JPI 국제화를 위한 제언

전 광 호



JPI Press

서론

UNESCO가 발행하는 『세계의 평화연구기관 안내』와 세계평화학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세계평화학회(IPRA))의 웹사이트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세계에는 약 90여개 국의 615개 정도의 평화연구 기관이 있다.¹ 물론 이들 등재된 기관들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평화운동에 관여하는 국제기구, NGO, 평화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종교단체 등을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학술연구기관으로 평화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연구의 특성상 평화교육, 평화운동 등과의 밀접성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수는 그 역사가 일천함에도 평화연구가 어느 정도 그 틀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1980년 313개 정도의 평화연구기관이 UNESCO에 등재되었던 것에 비해 냉전 해체 등의 영향으로 적어도 그 양적 숫자에 있어서는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지역적으로 나누어 보면 북미, 서구, 구소련권 및 동구,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세계의 전지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화 하면 유럽이 전체 평화연구기관의 약 45%, 북미 15%, 기타 등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북유럽의 경우는 이 중 전체 유럽 평화연구의 7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전문분야도 평화연구의 학술적 성격을 반영해서 정치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부터 자연과학의 제영역과 철학, 윤리학, 종교학, 그 외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평화연구가 취급하는 연구의 영역도 고전적인 ‘전쟁과 평화’의 제문제에서부터 개발, 인권, 교육 등 매우 다양화 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유럽 평화연구를 중심으로 평화연구의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평화연구 기관이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들에 대해 보다 많은 토론의 의제를 제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¹ UNESCO's "Peace Research Institute Database,"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1562&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과 세계평화학회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IPRA), IPRA Directory Guide of Peace Research, <http://ipra.terracuranda.org/> 참조.

평화연구의 특징

학문운동으로서의 평화연구는 어느 시대의 역사적 현실의 소산이다.² 즉, 평화연구는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60년대 전반에 걸쳐 동서 냉전의 와중에 핵전쟁에 의한 인류 공멸의 위기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류 생존의 과학’으로서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당시의 평화연구는 핵전쟁의 방지, 동서 긴장의 완화, 분쟁해결에 그 주된 관심사를 기울였다. 평화연구의 본격적인 태동기로서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물론 여타 학문분야에서 핵전쟁, 동서긴장 등의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제학문분야들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연구해 가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을 끈다. 흔히 평화연구를 사회과학 일부에 국한된 제한된 학문의 일부 분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으나 적어도 이 시기에 태동한 평화연구는 학제간 접근법을 통한 통합학문으로서의 평화연구의 가능성을 열어가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연구는 여타 학문분야와 달리 ‘실천적 학문’이라는 데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평화연구는 평화운동에 다름 아니다. 즉, 학문분야로서 평화연구는 행동의 준거를 마련하는 선형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1960년 대 말부터 1970년 대에 걸쳐 동서 긴장의 완화와 함께 평화연구는 남북문제, 제3세계에 있어서의 빈곤과 기아의 문제, 지배-종속 관계, 현대적 행태의 제국주의 문제 등 ‘구조적 폭력’, 즉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결코 평화도 아닌 상태에 평화연구의 분석적 초점이 맞추어져 갔다. 나아가 1970년 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분쟁과 구조적 폭력의 상호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가며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해 갈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발견하고 이에 입각한 세계질서 형성의 조건과 방법의 모색에 연구의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다.³ 이 시기를 평가해 보면 우선 평화연구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세련된 개념을 만들어 내

² Hylke Tromp, “Peace Research at the End of the Cold War,” in Elise Boulding, ed. (1992), *New Agendas for Peace Research: Conflict and Security Reexamine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p. 10.

³ Tom Broch and Johan Galtung (1976) “Belligerence Among the Primitives,” in *Peace, War and Defens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I, Copenhagen: Ejlers, Johan Galtung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등 참조.

며 그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평화의 개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분석적인 틀(tool)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평화연구는 가히 평화연구의 중흥기라고 부를만하다.⁴

이후 1980년 대의 평화연구는 세계 군사화의 매카니즘과 그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해명 노력, 반평화적 병리현상의 근간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문제는 평화연구가 1990년대 들어 맞이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하는데 과연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토의가 가장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새로운 세기 들어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평화연구가 다시금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⁵ 냉전 구조의 해체는 분명 전통적 의미의 전쟁, 평화연구에 대한 관심을 격감 시켰다. 그러나 오히려 국제협력, 환경, 에너지 등등 새로운 분야에서 평화연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해 가고 있음에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성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평화연구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점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970년대, 1980년대의 평화연구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평화연구자들 스스로가 너무 안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평화연구는 실천하는 학문으로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세련된 개념의 정립에는 성공하였으나 그것을 더욱 다듬고 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데에 소홀했다는 점을 통철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평화연구는 또한 항상 비판성을 그 존재 이유로 해왔다. 평화연구가 평화사상과 확실하게 구별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평화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연구이기 때문이지만, 이는 평화연구가 불가치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80년 대까지의 평화연구 이후, 즉 냉전 구도의 해체가 가져온 새로운 환경 앞에서 평화연구는 다시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으면서도 이를 체계적인 과학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데에 많은 미숙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⁴ A. C. F. Beales, “The Evolution of Theories on War and Peace,” in Nicholas N. Kittrie, Rodrigo Carazo, and James R. Mancham, eds. (2003), *The Future of Pe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pp. 58–68.

⁵ Amalendu Guha, “Peace Education and Peace Research,” in Nicholas N. Kittrie, Rodrigo Carazo, and James R. Mancham, eds. (2003), *Op. Cit.*, pp. 69–72.

는 평화가 전쟁의 함수로서 취해져 있는가, 혹은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평화연구가 무엇을 지향하는 학문이었는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볼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환언컨데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학자들의 관심사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2차대전의 참화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고조시켜, 많은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각각의 학문분야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미소냉전의 격화를 배경으로, '전쟁과 평화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 "살아남느냐 절멸하느냐"가 전인류적 의식이 되었던 그 시대에, 독일의 대표적 지성 C. F. 폰 바이제커는 "평화는 인류 생존 가능성의 조건이다."라는 명제를 내놓았는데, 이 명제는 극한적 폭력이 만연하는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국제사회의 현상유지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는 북반구 나라들의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을 반영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나온 것은 제3세계, 발전도상국의 연구자들이었다. 그들의 비판은, 제3세계에는 전쟁이 없는 때에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고, 전쟁의 종식이 행복, 복지,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 빈곤, 기아, 환경오염, 착취, 억압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인도의 평화학자 Sugata Dasgupta는 "비평화, 나쁜 개발"('Peacelessness and Maldevelopment,' 1968)이란 책에서 "비평화(peacelessness)"라는 신조어로서 제3세계적 삶의 정황을 표현했다.⁶ 그는 비평화의 구성요소로서 빈곤, 기아, 영양실조, 질병, 오염 등을 들면서 이들은 반드시 전쟁이나 국제적 긴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러한 비평화의 구성요소들을 제거하고 충분한 의식주, 의료, 위생적 생활환경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실현의 길이자 제3세계와 발전도상국의 평화연구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세계의 현상유지가 아니라, 세계의 정치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평화연구의 중심에 놓는 제3세계 평화연구의 입장과 접근방법이 여기서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해, 북유럽의 평화연구자들이 즉각 반응했다. 그 대표자격인 노르웨이의 Johan Galtung은 단지 전쟁이 없다는 의미의 평화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고 하고, 이에 반해 행복, 복지, 번영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의 평화를 '적극적 평화(positive

⁶ Amalendu Guha, "Peace Education and Peace Research," in Nicholas N. Kittrie, Rodrigo Carazo, and James R. Mancham, eds (2003), *Op. Cit.*, pp. 69-72에서 재인용.

peace)’ 라고 했다. 즉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실현이며, 인권의 옹호와 확대이며, 고통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폭력에는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해오는 personal하고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폭력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이고 구조적이고 잠재적인 폭력이 있다고 하면서 전자의 예로는 전쟁, 테러, 린치, 폭행 등을 들고 후자의 예로는 나쁜 사회제도, 잘못된 관습, 불평등한 경제, 나쁜 정치나 법률, 환경파괴와 오염, 나쁜 개발 따위를 들었다.⁷

그러나, 당시 서독의 신학자로서 평화문제를 깊이 연구해오던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전쟁의 방지가 긴급한 과제인 현대 세계에서, ‘전쟁 부재로서의 평화’를 negative(부정적, 소극적)하게 정의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평화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국제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돌려버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⁸

Sugata Dasgupta의 ‘비평화’의 개념과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의 개념, 그리고 볼프강 후버의 비판은 각각 평화의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화’라는 말에는 ‘전쟁의 부재’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류가 전쟁의 참화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평화도 결코 ‘소극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한편, ‘소극적 평화’라는 개념은 ‘적극적 평화’의 문제가 경시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과 분리되지 않고 손의 앞뒤 면처럼 평화를 구성하는 양측면으로 이해될 때 그 개념의 유용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Dasgupta의 ‘비평화’나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구조적 폭력’ 등의 개념을 매개로 하면서, 평화연구는 그 영역과 지평을 널리 확대해 갔다. 제3세계의 빈곤의 문제, 전지구적인 20대 80의 사회,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 등도 “구조적 폭력”으로서 평화연구의 과제로 되고 있다. 평화를 가장 좁게, ‘전쟁이 없는 상태’로 상정할 경우 이러한 평화는 끊임없이 전쟁에 의해 위협받는 불안정한 평화일 수 밖에 없다. 그러

⁷ Johan Galtung (1996), *Ibid*, pp. 24-26.

⁸ Amalendu Guha, “Peace Education and Peace Research,” in Nicholas N. Kittrie, Rodrigo Carazo, and James R. Mancham, eds (2003), *Ibid*, pp. 69-72에서 재인용.

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소극적인 개념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된 평화로운 상태를 확립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말하자면 운동의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더욱이 평화가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사회적 불공정과 억압이 없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층 적극적인 개념의 실체화를 위한 과학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화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평화를 여하히 정의하든 간에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인간성의 실현’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다. 환언하면 거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내-국제적인 사회구조의 창출과, 사회적 불공정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국내-국제적 질서형성에 대한 탐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평화의 구상이라는 과제는 평화연구에 있어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냉전의 해체 이후에는 더욱 구체화 되고 가다듬어져야 할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 경우 평화를 위한 정책, 정책과학으로서의 평화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종합하면 평화연구는 역사적 현실로 규정되면서 평화에 관해 연구하는 것, 평화가 아닌 상태를 비판하는 것, 평화를 구상한다고 하는 것, 이것들의 상호 연관적인 과제를 본래적으로 함축하는 학문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 해보자면 평화연구는 방법론상 학제적 성격을 가지며, 현장 체험 및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중시한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⁹ 즉, 평화연구에서는 책이나 논문을 읽고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현장의 체험을 중요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현장체험을 위한 주도면밀한 준비와 연수 후의 정확한 평가와 보고서 작성 등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평화연구에서 강조되는 현장체험과 현장연수는 사회조사방법과는 그 발상이 역전된다. 사회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조사의 주체이고 상대방은 조사의 객체로서 연구자의 눈에 노출된다. 이런 경우 많은 부분에서 조사대상을 연구자의 분류방법, 이론적 틀과 패러다임에 맞추려고 하는 오류가 생긴다. 이와는 달리, 현장체험의 기본은 연구자가 어느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내던져 상대방의 생각과 세계관 속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상황으로부터 배우고 상대방으로부터도 배우는 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평화연구의 현장연수에 일관되어야 할 방법이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려 하고, 무

⁹ Hylke Tromp, “Peace Research at the End of the Cold War,” in Elise Boulding, ed. (1992), *Ibid*, pp. 10-12

언어를 말해주려 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않고, 내 쪽의 약함(vulnerability)이 노출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결국 깊은 차원에서 상대방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평화연구는 평화운동의 구체적 실천들과 긴밀히 결합되면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학문이다.

유럽에서의 평화연구

전술했던 바와 같이 현재 세계에는 약 90여개 국의 615개 정도의 평화연구 기관이 있다. 그 전문분야도 평화연구의 학술적 성격을 반영해서 정치학, 경제학, 국제법, 사회학, 심리학에 서부터 자연과학의 제영역과 철학, 윤리학, 종교학 그 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평화연구가 취급하는 연구주제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라는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개발, 인권, 교육 등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화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전문분야는 정치학, 경제학, 국제관계, 법학 등이 많고 평화연구의 역사적 전개도 이들 제학문 분야의 통합적 발전현상으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 장에서는 평화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평화연구의 발생, 전파,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평화연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한다.

유럽에서는 1959년 오슬로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평화부문을 발전시킨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영향력으로 초기 유럽의 평화연구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산파역으로 최초의 평화연구 학회로 1963년 1월 “북유럽 평화연구학회,” 동년 9월 “유럽 평화연구학회” 모두를 오슬로에서 개최하게 된다. 이 같은 노력의 산물로 창간된 Journal of Peace Research를 통해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연구의 선구적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65년 최초로 개최된 세계평화학회(세계평화학회: IPRA)도 비록 개최 장소는 네덜란드 흐로닝겐(Groningen)대학에서 개최¹⁰하였으나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지도적 역할

¹⁰ 이후 1971년까지 네덜란드 흐로닝겐대학에 세계평화학회(IPRA) 사무국이 위치하게 된다. 세계평화학회는 당시 평화연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학술기관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세계평화학회 사무국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연구가 발전 되어온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을 여전했다. 특히나 첫번째 세계평화학회를 통해 평화연구에 있어 오슬로 그룹의 역할은 더욱 주목 받게 되었고 1966년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로 독립하여 사실상 세계평화학회(IPRA) 주도의 평화연구 그룹과 PRIO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평화연구 그룹으로 세계평화연구를 양분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PRIO는 초기 평화연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1971-1975년까지 세계평화학회(IPRA)는 PRIO에 위치하게 된다. 이들은 사실상 1960년대와 1970년대 평화연구를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시킨 평화연구의 선구자들이라 할 것이다. 평화연구 탄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핵무기 개발 경쟁의 격화에 대한 우려였지만, ‘평화’라는 테마를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낸 것은 바로 PRIO를 중심으로 했던 연구자들의 역할이었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평화연구자들은 먼저 연구의 전제인 평화, 즉 전쟁의 부재라고 하는 전통적인 평화개념에 도전하고, 동시에 그들은 평화연구의 중심테마를 전쟁보다는 더욱 일반적인 폭력이라는 개념을 선택했다. 이러한 그들의 문제의식은 비단 고전적 전쟁과 평화의 개념만이 아닌 침예해지는 당시의 남북문제에 대한 연구의 착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괄목할만한 업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문제의 등장은 비단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서만 인간에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직접 증명해 주었다. 의식주, 기본적인 의료 등 기본적인 휴머니즘의 결여가 곧 전쟁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량학살로 몰아간다는 점을 냉철하게 지적해낸 것이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직접적인 폭력과 대비시켜 ‘구조적 폭력’이라고 불렀다. 극도의 빈곤, 정치적 억압, 인종 차별, 무질서, 문맹, 기아 등 구조적 폭력의 확산 형태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종래의 평화연구가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방치한 채 분쟁회피 등의 연구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모든 폭력의 부재상태로서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1970년 대에 들어 PRIO는 Marek Thee를 편집인으로 계간 Bulletin of Peace Proposals를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언론활동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북유럽의 평화연구를 네덜란드, 영국, 독일, 그 밖의 유럽 여러 나라에 전파하였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프로테스탄트교회 연합평화협의회, Pax Christi 등이 중심이 되어 평화운동, 평화교육을 강조한 국가이다. 초기 평화연구에 있어서도 국제법의 권위자 Bert

Rding을 중심으로 “전쟁학연구소”를 설립, 전쟁학을 평화연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Nijmegen대학의 “평화연구센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평화연구작업그룹” 등이 신좌파적 경향의 평화연구를 네덜란드에서 주도하여 전통적인 전쟁학(polemologie) 연구와 평화운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진 국가이다.

벨기에 또한 네덜란드와 평화연구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가진 국가이다. 벨기에에는 작은 나라 규모에도 불구하고 브뤼셀, 안트워프를 중심으로 약 16개의 평화연구 기관 및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루뱅대학의 “평화연구소,” 브뤼셀자유대학의 “전쟁학 연구소,” “전쟁사회학 센터,” 독립기관으로 “분쟁학 연구소”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쟁연구를 중심으로 전통적 평화연구의 공통점을 네덜란드와 공유하지만 반면 탈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또한 다른 면이다.

영국은 “Pugwash Conference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IISS” 등과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평화연구에 상당히 적극성을 가진 나라이다. “군축 평화 연맹,” “국제반전동맹,” Lancaster대학의 “리처드슨 분쟁, 평화 연구소” 등이 평화연구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평화교육 기관인 Bradford 대학의 평화학부가 중심이 되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대학의 평화학부는 1973년 설립되어 현재 24명의 전임교원과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5개의 독립된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독일도 PRIO와 같은 규범적 연구활동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실증적, 계량적 방법론의 도입 등으로 평화연구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한 국가이다. “독일 평화, 분쟁 연구협회,” “헛센 평화, 분쟁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군축 매커니즘, 평화연구의 이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프랑스는 Gaston Bouthoul을 중심으로 1940년 대부터 평화연구를 발전 시켜오고 있으나 세계평화학계의 조류와 동일한 노선을 가지게 된 것은 1979년 “Association Francaise de Recherche sur la Paix”의 창설을 계기로이며, 아직은 불어권 특유의 독자적인 학문 전통이 강하여 평화연구 분야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스웨덴은 1966년 설립된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를 중심으로 북유럽 중심 평화연구의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가이다. Lund대학의 평화, 분쟁 연구 학부, Uppsala 대학의 평화, 분쟁 학부 등 평화교육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세계평화학계의 새로운 세대로 자리를 잡은 많은 우수한 젊은 학자들이 스웨덴에서 공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채롭다.¹¹

핀란드는 PRIO 이후 “Tampere Peace Research Institute”에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세계평화학회(IPRA) 사무국을 유치하고 있었으며, 역시 북유럽적 전통이 강한 평화연구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Wien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eace”를 중심으로 러시아 및 동구권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OSCE 사무국 등을 유치하고 있는 국제도시인만큼 제네바와 함께 각종 평화운동이 특히 활발한 국가이다.

스위스는 최근 들어 제네바를 중심으로 평화연구가 새로이 조명 받고 있으며, “Genev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Peace Bureau”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북유럽의 평화연구 기관과 연계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남유럽은 상대적으로 평화연구의 ‘주변부’라 불려지나 최근 이탈리아 나폴리의 “이탈리아 평화연구소,” 스페인의 “스페인 전쟁학 연구학회”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평화연구는 북유럽의 전통과 그 이외 국가들의 독립적인 활동 등에 의해 양 축으로 구분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북유럽 전통이 여전히 압도적인 우세 속에 있고 오히려 세계평화학회(세계평화학회(IPRA))가 일본 등에 위치함으로써 보다 더 뚜렷한 구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²

한국에서의 평화연구

한국에서의 평화연구는 그 역사가 일천하다. 기실 지금까지도 한국적 평화연구, 혹은 국내에서 평화연구의 다변화는 아직 태동조차 하지 못 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확실한 분석일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반공을 집권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함으로

¹¹ 전 세계평화학회 (IPRA) 사무총장을 역임한 Kodama 교수, 현재 PRIO 연구원인 Atsushi Yasutomi 등이 대표적인 스웨덴 학맥의 젊은 학자들이다.

¹² 현재 세계평화학회 (IPRA)가 벨기에의 루뱅대학에 위치하기 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평화학회 (IPRA)사무국은 일본의 Mie 대학 평화학부에 위치하였었다.

써 평화연구의 토대를 형성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오히려 일본은 비록 외세에 의한 불완전한 개념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평화헌법에 기초한 평화연구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의 사정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진다.

전통적인 평화운동은 전쟁의 예방과 중지, 전쟁기구(war instruments)의 해체, 군비축소, 전쟁원인의 제거에 초점을 뒀었다. 이러한 평화운동은 여전히 중요하고 타당하다. 한편, '비 평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불의, 빈곤,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와 수탈, 환경파괴, 성차별, 인종차별, 인권, 교육 등등 평화운동의 관심 영역은 실로 광범하고, 초국가적 차원과 일국적 차원, 지방적 차원, 나아가 개인적 차원에까지 다양하고 중층적이다.

또한 평화운동은 평화운동단체의 조직원들과 활동가들만의 몫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고 불의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조화로운 세계의 창조를 꿈꾸는 모든 사람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각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 정치인들, 법률가들, 문화예술가들, 교육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대중들이 모두 평화운동의 주인공들이 되고 참여자들이 되어야 한다.

19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세계평화회의'에서는 군축과 인간안보, 무력분쟁의 방지, 해결, 평화적 이행, 국제인도주의법, 인권법과 그 기구들, 전쟁의 근본원인과 평화의 문화 등 광범하고 다양한 주제를 수많은 분과 회의들이 열렸다. 그 중에서도 '전쟁의 근본원인과 평화의 문화'를 다룬 회의는 참가자들이 많고 회의장의 열기가 뜨거웠는데, 논의된 주요 이슈와 강조점들을 대강만 살펴봐도 평화문제의 상호연관성, 중층성과 다양성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모두의 관심사이자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다. 즉, 그 회의에서는 가난과 경제적 불평등, 인종적 종교적 갈등과 민족문제, 식민주의와 원주민의 소외, global governance를 위한 민주제도의 부재,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 학교와 미디어에서의 평화교육확대, 인종, 민족, 성, 종교에서의 불관용 제거, gender justice의 증진, globalisation의 적대적 효과 제거, 환경악화와 자연자원의 부족과 오염, 그 밖에도 많은 관련 주제와 이슈들이 다루어졌다. 오늘날 세계평화운동에서는 국제관계분야에서 민간인의 역할이 점점 두드러지는 가운데 평화운동단체들간의 국제적 연대가 깊어져가고 있다. on-line을 이용한 새로운 운동방식들이 등장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정보교류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고, 국경을 넘어선 반전평화 서명운동의 눈부신 약진을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평화운동진영에서는 9/11

사건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전쟁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평화운동은 통일운동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운동으로서의 독자성을 갖지 못해오다가, 1990년대 후반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같은 평화 단체가 생겨났고, 9/11 이후 미국의 ‘반테러’ 전쟁, 부시의 대북한 적대정책(‘악의 축’ 발언)과 한반도 전쟁 위기의식의 고조 등이 계기가 되어 독자적인 평화운동단체와 네트워크들이 여럿 생겨나는 등 평화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사회운동과 시민운동 내부의 평화 부문이 활성화되었고 종교, 여성, 문화예술 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의 반전평화운동도 활발해지는 등 전체적으로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한 반대와 한반도평화의 열망이 고조되는 분위기 가운데 한국 평화운동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전쟁지원반대, 한국군 파병반대, 매항리 미군폭격장 폐쇄, 불평등 소파(SOFA)개정, 미군기지 되찾기,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투자협정 WTO반대 등을 위한 수많은 시민 연대체들이 형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¹³

한국의 평화운동은 운동의 방법 면에서도 세계의 운동들로부터 참신하고 선진적인 요소를 흡수하면서 이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적극성과 개성을 드러냈다. 침묵시위, 1인릴레이 시위, 평화의 쪽지 보내기, 온라인 반전서명하기, 아프간여성 영상제, 반전평화콘서트, 반전 버튼 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 반전평화의 공감대를 넓혔다. 일반시민들의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과 젊은 세대의 반미정서가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팔레스타인 문제, 이슬람문화에 대한 관심과 토론의 확산을 도왔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그러나 단기간 또는 일회성의 활동에 그칠 뿐, 일반 민중과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아직 창조해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운동권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룩해 놓은 다종다양한 단체와 모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모임들에 참여하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더불어 평화운동의 큰 물결을 창조해낼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른바 ‘운동권’ 밖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진정으로 존중받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평화의 물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 수만 있

¹³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제1, 2, 5장 등 참조.

다면, 아마도 이것은 곧 평화연구를 업으로 삼는 전문가 집단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본다. 감상적인 반미, 반정부적 구호에만 침착하여 충동적인 시민사회의 일회성 행사만 만연하다면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운동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 그에 못지않게 더욱 적극적인 국제적 활동으로 한국의 평화연구를 이론적으로, 기존의 것들도 함께 수렴하는 학문적 성숙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결론

세계 평화연구의 중심은 많은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유럽이 북미에 비해 아직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북미쪽 평화연구가 전통적 평화연구의 전통이 아직 강하며 단일 개념의 ‘평화학’ 보다는 보다 활발한 학제간 연구를 통한 주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미가 가진 많은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등의 인프라를 감안할 때, 유럽의 연구기관과 함께 미국 연구기관과의 교류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이 2000-2004년 미에대학(三重大學)에서 세계평화학회(IPRA) 사무국을 유치 했던 것처럼 2012년 정도를 기점으로 하면 평화연구의 중심을 한국으로 유치해 볼 수 있는 배경적 조건이 성숙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¹⁴

2008년 벨기에 루뱅에서의 세계평화학회(IPRA) 총회 및 각 위원회별 연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 받는 한국의 평화연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한 적극 수용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만드는 일도 무엇보다 시급한 수순일 것이다.

일본이 세계 유일의 피폭국임을 내세우며 평화연구를 진흥시키고 세계 무대에 어필한 것

¹⁴ 2008년 벨기에 루뱅 (Leuven)에서 개최될 세계평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차기 세계평화학회 (IPRA) 사무국의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한번 유럽 내에 세계평화학회가 위치하게 되거나 북미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2012년 차차기 후보지로서 아시아는 매우 경쟁력이 있는 후보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한다면 충분히 세계평화학회의 중심을 한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루뱅에서의 세계평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2010년의 국제학술대회도 주목해야 할 큰 학술회의라고 할 수 있다.

과 같이 한국은 유일 분단국의 경험으로 비롯한 평화연구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북아 평화의 섬’의 가치를 내건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적인 구상은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벤치마킹을 하여할 적절한 대상의 선정, 실질적인 교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하루 빨리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라 보여진다.

참고 문헌

구갑우(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박상섭 역(1991), 『평화를 위한 전략』 (서울: 인간사랑).

Boulding, Elise, ed. (1992), *New Agendas for Peace Research: Conflict and Security Reexamine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Broch, Tom and Johan Galtung (1976), “Belligerence Among the Primitives,” in *Peace, War and Defens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I, Copenhagen: Ejlers.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Hartmann, Anja V. & Beatrice Heuser, eds. (2001), *War, Peace and World Orders in European History*, London: Routledge.

Kittries, Nicholas N., Rodrigo Carazo, and James R. Mancham, eds. (2003), *The Future of Pe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Sørensen, Georg (2001), *Changes in Statehood*, New York: Palgrave.